

## 아시아 최초 대동맥판막 스텐트시술 1,000례



아시아 최초, 서울아산병원이 대동맥판막 스텐트시술(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이하 타비시술) 1,000례를 달성했다. 지난 5월 6일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에서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앓는 90세 할머니의 망가진 대동맥판막을 대체할 인공판막을 넣는 시술이 이루어졌

다. 이로써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은 아시아 의료기관 최초 1,000번째 타비시술을 시행했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대동맥판막의 노화로 인해 판막이 석회화 되면서 굳고 좁아져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과거에는 가슴을 열어 수술로 치료했지만 최근에는 수술이 어렵거나 고령의 환자에게 전신마취 없이 타비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타비시술은 가슴을 열어 진행하는 수술과 달리 허벅지 동맥혈관을 통해 심장판막에 도달한 후, 좁아져있는 판막 사이에 기존 판막을 대체할 인공판막 스텐트를 넣어 고정하는 시술로, 흉터가 작아 회복이 빠르고 고령환자도 부담이 적다.

타비시술은 시술 시 대동맥 및 혈관 손상, 뇌졸중 합병증 가능성 등 위험성이 높아 최고난도를 자랑한다. 특히 환자들이 80세 이상 고위험군임에도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시행한 타비시술 1,000례의 성공률은 96%이고, 최근 5년간의 성공률은 99%에 달한다. 중증 뇌졸중 발생률 1%, 조기(30일 이내) 사망률 1% 등 현저히 낮은 합병증 발생률을 역시 자랑한다. 이는 미국과 유럽 병원의 최고 선두 그룹과 유사한 수준의 성적이다.

## 융합연구지원센터, 바이오 코어설비 구축사업 선정



서울아산병원 융합연구지원센터가 바이오 코어설비(Core Facility)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국내 신생 바이오 벤처 기업들에게 기술·장비·시설, 컨설팅 및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해 창업자의 성장을 돕는다.

융합연구지원센터는 의료현장 기반의 혁신적인 바이오 코어설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담아 이번 사업의 이름을 CHOICE(Center for Hospital-based Open Innovation CorE facility supporting Bio-Startup)로 지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01억 원을 지원받아 신생 바이오 벤처가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CHOICE에 선정된 바이오 벤처기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 기반 코어랩 서비스 ▲국내 최대 임상 자원 및 전문적인 의료 자문 ▲국내 최고의 전임상 유효성 평가 서비스 ▲글로벌 기준에 맞춘 표준화, 품질관리 ▲글로벌 규제 기관 기준의 전자 노트 데이터 관리 서비스 ▲투자 유치를 위한 교류 및 특허, 기술 분석 ▲1:1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수요 맞춤형 서비스 ▲공공 오피스, 실험공간 등을 지원받는다.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확대... 안전·서비스 향상



서울아산병원이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확대했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는 진료교수가 상주하여 진찰, 경과관찰, 상담, 간단한 처치와 시술, 퇴원계획 수립 등을 시행한다.

환자들은 기존 주치의와 진료교수를 매일 2~3차례 만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2017년 3월 중양내과 병동에서 처음 시작한 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진료과, 병동이 점차 늘었다. 지난 3월 1일 25명을 새로 총원해 현재 총 54명의 진료교수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한다.

송종민 진료지원실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우리 병원에 잘 정착돼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빠른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 의료인력 구조 변화, 입원환자 관리 강화 등의 의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